

임실군, 벨기에 대사관과 협력 강화 ‘원푸드’ 육성 관심 집중

임실치즈 아버지故 지정환 신부 고국 벨기에 브루노 얀스 신임 대사, 임실 방문

브루노 얀스(Bruno Jans) 주한 벨기에 대사가 임실군을 전격 방문했다. 임실군은 지난 18일 브루노 얀스(Bruno Jans) 주한 벨기에 대사와 미셸 클레만스(Michel Ceulemans) 외교관이 임실을 방문, 임실군과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자리를 가졌다. 브루노 얀스 대사는 지난 8월 새로 부임한 이후, 벨기에 출신이자 임실치즈의 아버지인故 지정환 신부의 일이 깃든 임실군을 처음 방문했다. 브루노 얀스 대사는 군수실에서 심민 군수와 장종민 군의장 등과 면담을 갖고,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우호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임실군은 지난 18일 브루노 얀스(Bruno Jans) 주한 벨기에 대사와 미셸 클레만스(Michel Ceulemans) 외교관이 임실을 방문, 임실군과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자리를 가졌다.

면담 후에는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된 임실치즈테마파크로 자리를 옮겨 유럽형 잠미원과 함께 여러 유럽풍의 시설들을 둘러보았다. 특히,故 지정환 신부님의 역사와 업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임실치즈역사문화관을 찾아 척박한 산골 임실에 오셔서 1967년 산양 2마리로 최초의 임실치즈를 만들고 발전시켜 온 과정이 담긴 영상과 전시물을 관람하면서 대한민국 치즈의 탄생과 역사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나눴다. 만찬장에서는 임실 고다치즈, 라플렛

치즈 등 숙성치즈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도 맛보며 임실군과 벨기에가 임실N치즈로 하나가 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그동안 임실군은 벨기에 대사관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왔다. 브루노 얀스 대사는 “임실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지닌 곳으로, 벨기에 대사관과 임실의 우호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며 “지정환 신부님이 임실치즈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유

산을 이어받아 우리는 상호 문화와 전통을 통해 더욱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심민 군수는 “이번 브루노 얀스 벨기에 대사님 방문을 계기로 벨기에 대사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벨기에 출신 지정환 신부님의 업적을 기리고 임실N치즈가 국제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두 나라 간의 문화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가족센터 건립 공정률 82% ‘순항’

순창군이 추진하는 가족센터 건립이 막바지 공사 단계에 접어들었다. 현재 82%의 공정률을 기록하며 순항 중인 이 프로젝트는 2025년 하반기 개관을 앞두고 지역 사회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총 8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번 가족센터 건립 사업은 순창읍 장류로 407-11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다. 연면적 2,482.27㎡에 달하는 이 센터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족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복합 공간으로 설계되었으며, 1층에는 작은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다목적 가족 소통·교류공간, 다문화 언어교실 등이 마련된다.

2층에는 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등이 들어선다. 교육실에서는 부모교육, 가족 교육,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상담실은 가족 관계 개선과 갈등 해결을 위한 전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3층은 다목적실, 행복소통실, 요리교실, 군민사회교육실, 휴게공간(옥상)으로 구성되고, 다목적실은 각종 문화행사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협약 체결

남원시는 19일, 서울 LW컨벤션에서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인증 현판을 수여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할 의지와 기반이 조성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있으며, 남원시는 2013년 최초 지정 이후 3번째 지정되었다. 이에 남원시는 여성친화도시사업 전

담인력 배치, 성인지통계 구축, 위원회 양성 참여율 제고, 여성일자리 및 안전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를 확립했다. 또 시민참여단과 여성친화도시 사업 수행기관·단체들과의 민·관 협력을 기울여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앞으로도 5대 목표 과제에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돌봄)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확대·강화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농기센터, 지역 농특산물 활용 가공상품 개발

남원시가 민선 8기 공약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푸드’ 육성이 미식관광 활성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는 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관광객들에게 남원만의 독특한 미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백향과와 가루 쌀, 팥 등 지역 내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소재로 한 가공상품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다. 백향과를 활용한 원푸드 개발의 경우 이미 리뉴얼 상품화를 통해 백향과 아이스크림, 초콜릿, 음료 등 8개 업체에서 10여종을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백향과 앙금 찰빵과 남원 특산 백향과 시럽의 경우에는 제조기술 관련 특허출원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개발된 원푸드는 그간 성공적으로 진행된 테스트키친과 시식평가회를 거쳐, 춘향제와 드론축제 및 서울국제식품산업전 등 대규모 행사 참여로 백향과 기반의 가공식품인 간식류와 간편식, 소스류 등 다양한 메뉴로 선보여졌다. 특히, 원푸드 개발 육성은 남원의 미식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일례로 지역 내 가공업체와 청년 창업가들이 운영하는 △아리당



(백향과크림찰떡) △하먼치즈(백향과요구르트) △비즈(관한투막걸리) △토종식품(우리통밀빵) △새싹(가루쌀빵) 등은 기존의 취급 상품군에 백향과를 비롯한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창의적 접근으로 리뉴얼된 상품들이 매출 상승과 경영안정이라는 성과를 내며, 남원의 미식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에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원푸드 육성을 단순한 상품 개발에 그치지 않고, ‘남원형 원푸드 생태계’를 구축해 장기적으로 지역 농산업과 관광산업을 연결하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공상품화와 지식재산권 확보를 병행하며, 청년창업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청년들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산타축제’ 21일 개막

25일까지 먹거리 · 볼거리 · 즐길거리 풍성

임실군의 대표 겨울 축제이자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2024 임실산타축제’가 오는 21일, 5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2024 임실산타축제는 21일부터 성탄절인 25일까지 5일간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개최된다. 군은 한층 더 풍성해진 먹거리와 볼거리, 눈썰매 체험 등 즐길거리를 대폭 확대, 운영한다. 먼저 겨울철 체험거리로는 올해 처음으로 이벤트 광장에 길이 50m의 대형 눈썰매장이 선보인다. 어린이들을 겨냥한 치즈 컬링과 헬린지 에어바운스, 가족 트리 만들기, 가족 케이크 만들기 등 체험 이벤트도 풍성하다. 축제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활재를 이용한 빙어 잡기 체험도 마련, 특별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테마파크 메인 안내소 등 행사장 곳곳에 있는 산타들이 보드게임 및 민속놀이, 팽기 등을 진행한다. 치즈테마파크 랜드마크인 치즈캐슬 앞 10미터 높이의 웅장한 크리스마스

대형 트리를 중심으로 눈사람, 사슴 조형물 등의 겨울을 테마로 한 포토존과 포인세티아 장식 등으로 치즈테마파크의 또 다른 매력을 뽐내고 있다. 먼저 먹거리는 지난해보다 규모를 30%나 증가, 겨울철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맛있는 음식들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테마파크 내 편의점 앞 주차장에 위치한 대형음식부스에서는 시래기국과 다슬기 수제비, 소고기뭇국 등의 한식 메뉴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즈돈까스와 짜장면, 떡볶이, 치즈감밥 등을 가득 마련했다. 간식거리도 풍성하다. 찰옥수수과 어묵, 핫초코, 국화빵, 소시지 등을 준비, 축제장 곳곳에서 쉽게 먹거리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축제 기간에는 평소 할인을 하지 않는 임실N치즈 등 각종 유제품을 20% 저렴하게 판매한다. 또한 산타축제 방문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주-임실 간 셔틀버스도 운영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 통

남원 산동면,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정 추진

남원시 산동면행정복지센터(면장 지양근)는 취약계층,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올해 현재까지 482가구의 현장에서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정과 주민문제해결을 찾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결과는 ▲찾아가는 이불세탁 서비스(153건) ▲어르신 휴대전화 안전벨트(850건) ▲돌아온 정촌원색방(90건) ▲농산물 함께 싣고 나누고(250건) ▲동절기 사랑의 쌀 나누기(111건) ▲행복복합시 스티커 제작(1000건)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 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와 더불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등과 병행, 주민들의 주거환경, 생활실태, 건강상태 및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점검하고, 특히 한파대비 행동요령을 알리며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수혜에 대한 체감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지양근 산동면장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행복하고 꽃향기가 피어나는 산동면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산불 예방 · 대응 평가 우수기관 선정

순창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산불 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산불 예방과 대응, 홍보 활동 등 총 8개 지표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졌다. 군은 매년 봄철과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군민의 자발적인 산불 예방 참여를 유도하고, 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에 대한 과태료 부과 △화목보일러 현장 점검과 안전 사용 매뉴얼 배부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산불 방지 계도 활동 △주요 관공지와 도로변 산불조심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군민들의 산불 예방 의식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괄난 항의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열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